2008대입 논술 통해 5만여명 선발

45개대 반영…광주·전남선 광주교대·남부대만 실시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논술고사를 반영해 선발하는 모집인원이 5만1천여 명이며, 논술을 대비하는 고3 학생은 18만1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대·조선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광주교대(정시모집)와 남부대(특정모집 단위) 등만 논술고사를 본다. 〈표〉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201개 4년제 대학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논술고사를 전형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은 전체의 22.4%인 45곳이고 모집인원은 전체 37만1천755명 중 13.9%인 5만1천807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6.1%는 학생부 또는 학생부와 수능시험을 조합해 선발한다.

논술 반영대학은 2007학년도 28개 대학(수시 20곳, 정시 21곳)에서 7개 교육대학, 1개 신학대학, 11개 일반대학 등이 추가돼 모두 45개 대학(수시 26곳, 정시 41곳)으로 늘었다.

모집시기별로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와 논술을 반영하는 대학이 26곳이고 모집인원은 수시 전체 인원의 8.7%인 1만6천752명이다.

정시모집에서 학생부와 수능,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41곳이고 모집인원은 정시 전체 모집인원 18만168명의 19.5%인 3만5천55명에 달했다.

2006학년도 서울대 등 주요 9개 대학 정시 평균 경쟁률 3.5대 1을 적용하면 논술을 대비하는 고3 학생은 61만817명 가운데 30%가량인 18만1천32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논술 고사 반영비율은 수시모집의 경우 50% 이상이 8곳(2007년 4곳), 40% 이상 반영 대학이 3곳(2007년 2곳), 30% 이상 반영 대학이 6곳(2007년 2곳)이다. 정시모집의 경우 30% 이상이 2곳, 20% 이상이 10곳, 10% 이상이 25곳, 10% 미만이 4곳 등이다.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선발하는 신입생 규모는 수시 58개교 4만3천509명, 정시 4개교 554명으로 모집인원의 12.9%였다.

2007학년도와 비교하면 114개 대학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였고 특히 학생부 50% 이상 반영 대학은 2007학년도 38곳에서 128곳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수능시험 50% 이상 반영대학은 170곳에서 125곳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반영비율이 감소되면서 학생부 반영비중이 확대됐으나 상위권 대학 및 지방 거점 국립대 위주로 논술고사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2008 논술실시 대학 현황

실시 계열		실시 대학
수시 (26)	인문계열	서울대, 건국대(서울), 대전가톨릭대(신학) (3개교)
	인문/자연계열	한국교원대, #강남대, 경인교대, 경희대(서울), 경희대(수원), 고려대(서울), 국민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동국대(서울), 상명대(서울),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23개교) #:수시만 보는 대학
정시 (41)	인문계열	건국대(서울),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대전가톨릭(신학),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교대, #수원가톨릭(신학), #인천가톨릭(신학), #장로회신대(신학, 기독교육), #진주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16개교)
	인문/자연계열	#강원대(춘천), #경북대, 서울대, 한국교원대, 경희대(서울), 경희대(수원), 고려대(서울), #관동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성대, 한양대 (25개교) #:정시만 보는 대학
총 대학 수		45개교 (정시·수시 22, 정시 19, 수시 4)

■특정모집단위 논술 실시대학

구분	실시대학
수시	건양대(의학), 계명대(의학), **남부대(방사선, 초등특수교육)**, 대구가톨릭대(의/약학), 동국대(경주, 의학), 동의대(한의예), 상지대(한의학), 선문대(통일신학, 언론광고), 세명대(호텔관광경영), 영남대(의학), 울산대(의예), 한림대(의예) (13개교)
정시	강릉대(치의예), 경성대(의학), 경원대(한의예), 계명대(의학), **남부대(방사선, 초등특수교육)**, 단국대(영화전공), 대구가톨릭대(의/약학), 동의대(한의예), 삼육대(약학, 간호, 물리치료), 상지대(한의학), 선문대(통일신학, 언론광고), 세명대(한의예), 순천향대(의예), 영남대(의학), 영산대(법률학), **영산선학대(원불교학과)**, 울산대(의예), 인제대(의예), 한림대(의예) (19개교)
총 대학 수	22개교 (정시·수시 10, 정시 9, 수시 3)

'수능시계' 고사장 반입 허용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소위 수능 고시별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수능시계'〈사진〉의 고사장 반입을 허용키로 하고 그 외 기능이 있는 시계는 각 고사장 감독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험 시간은 고사장의 중앙통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능시계'와 시차가 발생하고 종료 직전 1~2분의 시차가 발생하면 답안지 표기 등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시차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특정시계가 일반적인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및 부정행위 등과의 연관성 여부 등은 시험 감독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시험장에서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돋보기·귀마개 등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은 감독관이 검사한 후 휴대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시중에 처음 선보인 수능시계는 스톱워치·알람·계산 기능 등을 모두 없애고 현재 시각과 수능시험 과목별 남은 시간만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언어·외국어 등 긴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영역에서 효과적인 시간 안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일부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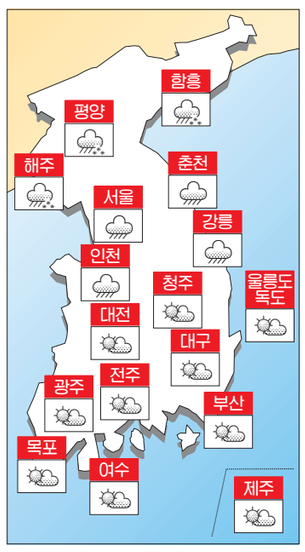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

출근길 추위 다소 풀려

11월 8일 (음 9월 18일) ◇전국날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뒤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 주	맑은뒤 흐림	6~19℃
목 포	맑은뒤 흐림	8~19℃
여 수	맑은뒤 흐림	9~19℃
완 도	맑은뒤 흐림	7~20℃
구 례	맑은뒤 흐림	3~19℃
해 남	맑은뒤 흐림	4~20℃
장 흥	맑은뒤 흐림	4~20℃
고 흥	맑은뒤 흐림	6~20℃
순 천	맑은뒤 흐림	3~19℃
영 광	맑은뒤 흐림	7~19℃
진 도	맑은뒤 흐림	6~19℃
전 주	맑은뒤 흐림	6~19℃
남 원	맑은뒤 흐림	3~18℃
정 읍	맑은뒤 흐림	5~18℃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5~3.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03:21 16:15 썰물〈 08:37 21:23
여 수 밀물〈 10:48 22:42 썰물〈 04:08 16:51

▲해뜸 07:00 ▲해짐 17:32 ▲달뜸 19:30 ▲달짐 10:0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날 씨						
최저/최고	10/17	5/12	4/12	3/14	5/14	6/11

안순일 교육감 취임 안순일 광주시교육감(민선 4대)이 7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취임사에서 "아름다운 학교 환경을 조성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시대의 주역이 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쌀 야적시위 확산

22일 'FTA 반대 궐기대회'까지 계속될 듯

한·미 FTA 협상 중단과 추곡 수매제 부활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쌀 야적 시위가 광주·전남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주시 농민회는 7일 나주시청 앞에 벼 1천여 포대(이하 40kg)를 쌓고 시위를 벌였으며, 고흥군 농민회도 9일 고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농민들의 야적 시위는 오는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FTA 반대 민중 총궐기대회'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야적시위는 지난달 31일 영암군 농민회(700포대)가 처음 시작한 이후 ▲11월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전남도청 앞 1천500포대) ▲11월6일 광주시 광산구 농민회(광산구청 앞 400포대) 등으로 이어졌으며, 각 시·군·구 단위 농민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농민들은 ▲한·미 FTA 즉각 중단 ▲추곡 수매제 부활 ▲한반도 전쟁책동 주범 미국의 한국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회 관계자는 "작년에 수매제 폐지로 인해 벼값이 30%나 폭락했고 올해 쌀 생산량이 100만석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쌀 소득 보전금 지급 확대, 식량 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업의 생존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 전교조 교사 절반 "연가투쟁 반대"

10명중 4명 이직 희망…69%가 "체벌 필요"

전교조 교사 절반 가량은 성과급 저지 연가 투쟁이 전교조의 고립을 자초할 것으로 생각하는 등 연가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교조 광주지부가 지난달 24~26일 소속 교사 4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성과급 저지 연가투쟁이 전교조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과급 저지 연가투쟁이 전교조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2.4%에 불과했고, 어느 정도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답한 교사는 30.5%였다.

전교조의 각종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44.4%에 달했다. 전교조 지도부가 연가투쟁을 결정할 경우 '참여한다'는 교사는 10%에 불과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사는 37.9%, '상황을 봐서 참여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52%였다.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전교조 교사 66.6%가 진보라고 답했다. 중도는 24.8%, 보수는 8.6%였다.

교직 만족도 조사에서는 37.9%가 '다른 직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교직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또 24.3%가 '교직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교권 침해 요인으로는 ▲교육당국 36.3% ▲학부모 25.3%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24.1% ▲학생 5.3% ▲동료교사 2.4%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학생에 대한 체벌에 대해서는 69.2%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고교 평준화는 82.6%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건 125명(29.8%), 김근태 98명(23.4%), 노회찬 49명(11.7%), 이명박 34명(8.1%), 정동영 27명(6.4%) 등을 꼽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

호남고속도 등 '로드킬' 예방시설 연말 준공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이하 도공)는 고속도로에서 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road-kill)을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유도시설'이 올 연말 준공된다고 7일 밝혔다.

도공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호남고속도로 19곳 ▲서해안고속도로 9곳을 선정, 유도울타리 18.9km를 설치하고 나무 2만9천640 그루를 심고 있다.

또 도로에 들어온 동물을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호남고속도로 5곳에 국내 최초로 야생동물 탈출로를 만들고 있다. 탈출로는 울타리에 소형 파이프나 문을 설치해 동물이 드나들 수 있게 하고, 흙으로 경사로를 만들어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형태다.

도공은 유도시설 준공 후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대체 이동통로 2곳에 센서감지 카메라와 모래 족적판을 설치, 동물 이동 현황을 감시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키로 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양대노총 도심집회 불허

서울경찰청, 교통정체 우려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왔지만 교통 정체 유발이 우려됨에 따라 불허했다고 7일 밝혔다.

개최가 불허된 집회는 민주노총이 1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열 예정이던 '전국노동자대회'(신고인원 20만 명)와 한국노총이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기로 했던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사항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신고인원 3만 명) 등 2건이다.

민주노총 집회의 경우 종묘, 명동, 서울역에서 사전집회를 연 뒤 광화문으로 행진할 예정이고, 한국노총 집회도 종묘에서 집회를 연 뒤 도심 행진을 하기로 해 불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